

SINCE 1966 감성이 살아있는 사진전문지

월간사진

10

VOL.501
October 2009

월간사진

Vol.501

Acceptance of the gap 데이비드 힐러드 / 가을맞이 추천하는 아외전시장 3곳

October 2009

Monthly Photographer

Acceptance of the gap 데이비드 힐러드

산타 크로스의 정체 유하 쉰언페

사건의 재구성 김재범

nowhere, now here 백미정

무의식과 꿈의 내러티브 고민정

Monthly Issue

인터뷰 김문호, 최봉림

사진기자가 본 세계보도사진전

사진가가 사는 방법 한세준

갤러리의 재발견 서울시립미술관

프리뷰 사라 문 한국 특별전

사진가 필름 웨슨 법정궁방

가을맞이 추천하는 아외전시장 3곳

♣ 10월 말까지 정기구독 및 재구독을 신청하시는 독자들에게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사라 문 한국 특별전 입장권 2매씩을 드립니다.

Photography
PG



www.monthlyphoto.com

월간사진전문지 1966년 5월 27일 등록(제1-01002) 1985년 12월 8일 3종 우편물(대금) 등본 501호 2009년 10월 19일 발행 정가 8,000원



Rachel Papo, Waiting for service at a military kiosk counter. Shaare Avraham, Israel, 2004(Finalists for Deeper Perspective Photographer of the Year)

2009 국제사진가상(IPA)

모든 사진 분야, 사진가 망라한 국제 콘테스트

ipa ~ int'l photography awards ~

사진을 하면서 자신만이 느끼는 보람과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보상도 있겠지만 만일 국제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인정받고 사진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이미 상업적으로 전문가이거나 비전문가이거나 혹은 학생이라도 사진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 있다. '국제사진가상' (International Photographer Awards, IPA)은 오랫동안 사진이 관련된 다양한 기획을 이끌어온 후세인 파마니(Hossein Farmani)에 의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이 상을 주관하고 있는 루씨 파운데이션(Lucie Foundation)은 기존의 사진 대가들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사진에 재능을 보이는 새로운 사진가들을 발굴해 후원하고 있다.

전문가, 비전문가 나뉘어 40~50개 카테고리에 응모

올해 7회를 맞은 국제사진가상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진다. 전문가(Professional)와 비전문가(Non-Professional) 부문. 전문가 부문은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사진에서 얻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문이며, 비전문

가 부문에는 학생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전문가 부문은 광고, 건축, 출판, 특집기사, 순수예술, 자연, 인물 그리고 특수분야 등 8개 카테고리(Category)로, 비전문가 부문은 전문가 부문에서 출판이 제외된 7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다시 세부적인 40~50개의 서브 카테고리(Sub Category)로 나뉜다. 응시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하며, 심사위원들은 이를 재조정하지 않는다. 심사는 각 카테고리 별로 한 장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이 따로 진행된다. 루씨 파운데이션은 서브 카테고리 별로 3위까지 수상자를 선정하며 다시 이들 중에서 카테고리별 수상자들을 선정한다. 서브 카테고리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수상자들이 배출되며 자연스럽게 기회도 폭도 넓다. 국제사진가상의 가장 큰 명예와 기회는 세 가지 상으로 모아진다. 첫째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International Photographer of the Year'이며 두 번째는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Discovery of the Year'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심층 취재한 사진가를 선정하는 세 번째 상인 'Deeper Perspective Photographer of the Year'가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으로 1만 달러와 5천 달러씩이 수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출판물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주요 사진, 미술, 광고 관계자들에게 노출되며 뉴욕에서 전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이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가들은 모두 뉴욕 링컨센터(Lincoln Center)의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며 곧바로 뉴욕 스플래쉬 스튜디오(Splashlight Studios)에서 전시 기회도 갖는다.

다큐멘터리 강세 속 10월 중 수상자 발표

건축, 광고, 인물, 순수예술은 물론 웨딩, 항공, 애완동물, 현미경 사진 등 사진에 관한 거의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사진가상은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분야의 사진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왔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같이 경험하는 'Deeper Perspective Photographer of the Year'에 올라 있는 최종 후보작들만 보아도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스라엘의 레이첼



Alain Paris, Boucote, 1992(Finalists for Discovery of the Year:People)



Andreas Smetana, World Wildlife Fund Rhino, 2007
(Finalists for International Photographer of the Year:Advertising)



Eugenia Maximova, Vicious Circle, 2007-2009(Finalists for Discovery of the Year)



Yann Gross, Faruk & Titty, 2008(Finalists for Discovery of the Year)

파포(Rachel Papo)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 소녀에서 여성으로, 아이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인 18살에 군입대를 했다.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군복무 기간 동안 그녀는 전쟁과 분쟁은 물론 남성성으로 가득 찬 군대에서 어린 여성으로서 외로움과 무감각, 우울함에 빠져 보낼 수밖에 없었다. 레이젤 파포는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뒤 카메라를 들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 여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크리스찬 비움(Christian Vium)이 2006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프로젝트 'The Crossing'은 서부아프리카인들의 유럽 불법 이주를 다루고 있다. 이제 막 어른이 된 어린 성인들이 대부분인 이주민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건 여정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아이와 어른, 낮익은 곳과 낯선 곳, 삶과 죽음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에 놓여있다. 작가는 이들의 위험하지만 용감한 도전을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인의 인정도 받으려 미지와 무의식의 세계로 뛰어드는 현대판 영웅의 여정으로 보고 있다. 유지니아 맥시모바(Eugenia Maximova)는 불가리아에서 집사로 살고 있는 36살의 나드카와 그녀의 가족들을 기록했다. 나드카와 그녀의 아이들은 불가리아의 루즈(Ruse)시 중심부에서 상수도는 물론 하수도 시설도 없는 버려진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드카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의 삶을 어떻게든 개선시켜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녀의 자녀들 역시 그녀와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칼리가트(Kalighat)는 인도 콜카타(Kolkata)에 있는 세계 최대의 매춘굴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구걸, 절도 혹은 마약 등을 하며 매춘의 세계로 빠져든다. 알베르토 리자랄데(Alberto Lizaralde)는 칼리가트 흥등가 안의 작은 보호시설인 뉴라이트(New Light)에 머물고 있는 라케쉬(Rakesh)라는 아이의 하루를 따라 간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하루 주변환경과 힘겹게 맞서는 라케쉬의 매시간 매분이 사진 하나하나에 새겨진다. 안 그로스(Yann Gross)의 조금은 색다른 다큐멘터리라는 우간다의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들을 담고 있다. 다수의 노동계층들이 빈곤과 에이즈,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노출되



Alberto Lizaralde, 24 Hours With Rakesh. 13:12pm, 2007(Finalists for Discovery of the Year)



Rus Anson, My Circus, 2009(Finalists for Discovery of the Year:Advertising)

어 있는 우간다 사회에서 캄팔라(Kampala) 교외에 사는 이들은 정부나 NGO의 지원 없이 스스로 스케이트보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손수 경기장을 만들어 스케이트보드에 열중한 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며 소속감으로 결속되어 있다. 그리고 선배들은 어린 스케이트 보더들에게 가족을 대신하는 든든한 상담원이 되어주고 있다.

유독 도드라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라미아 아빌라마(Lamia Abillama)의 사진 속에는 평범한 가정집 안에서 여성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있다. 1975년 이후 내전과 지역분쟁으로 인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레바논의 힘겨운 현실이다. 30년을 넘기며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은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은 물론 총을 들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남기며 이는 집안 구석구석의 작은 일상에까지 병처럼 퍼져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2009년 국제사진가상 중 최고의 영예를 누릴 3명의 작가는 10월 뉴욕에서 있을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된다. 올해 시상식은 10월19일, 뉴욕 링컨센터 내의 앨리스 툴리 극장(Alice Tully Theatre)에서 열린다.

지난 7월까지 전 세계 104개국에서 1만8천여 점에 이르는 작품들이 응시한 올해 국제사진가상은 다양한 응모분야와 가능성으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사진잡지와 갤러리, 에이전시와 출판사 등 사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해 이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된다. 올해의 선정 작가들의 작품과 국제사진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photoaward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MP

클 | 이철승객원기자(미국), 디자인 | 김윤정기자